“해양지식 없는 국토부 탁상행정…진도~가사도 배 끊길 판”

“급수선 사업비, 여객선 건조에 투입은 불법” 108억 환수 결정
주민 취소 촉구 시위…진도군 “환수 결정 유지땐 여객선 팔아야”

국토교통부의 선박 건조비 환수 결정으로 진도 본도(쉬미항)와 가사도를 오가는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섬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진도군이 섬 주민 불편을 고려해 여객선 건조에 ‘급수선 건조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불법 전용’이라는 감사원 판단과 그에 따른 국토부의 사업비 환수 결정으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편인 여객선이 매각될 형편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사도 다목적선박 국가보조금환수조치 반대대책위 박정근 대표를 비롯한 주민 50여명은 10일 진도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급수선 사업비 환수’ 결정은 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사업비 환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사업비(급수선→여객선 건조)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지난해 말 현장조사를 다녀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보조금 환수라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비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고 했다.

섬 주민들이 이날 뱃길로 30분 떨어진 쉬미항으로 와 기자회견을 연 것은 국토부 결정으로 여객선 운항이 또다시 멈출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진도군은 급수선 건조사업비 27억원에 더해 300%에 달하는 제재부담금까지 모두 10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진도군의 경우 해당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을 팔지 않고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환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객선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도 본도와 가사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민간선사가 운항해왔으나 지난 2015년 쌓이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운항을 멈췄다.

이에 진도군은 급수선 건조사업비 27억원을 여객선 건조에 투입했다. 2018년 12월부터 민간선사(농협)가 하루 3차례 여객선 운항에 들어갔으며, 158세대 264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감사원이 2019년 급수선 건조사업비를 여객선 건조에 쓴 것은 불법 전용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사업비 환수 방침을 진도군에 통보했다.

진도군은 감사원 판단에 대해 “여객선 건조 전 국토부에 전용 승인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결손보조금 등이 보조되는 보조항로는 여객선 건조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불승인했다”며 “그러나 가사도~쉬미항 항로는 보조항로가 아니라 일반항로이다. 해양지식이 부족한 국토부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면서 애꿎은 섬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10일 쉬미항에서 국토교통부의 ‘진도군 급수선 건조비 환수 방침’ 결정은 잘못이라며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사도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우리나라 어디든지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사실상 진도군과 가사도 주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온라인 쌍방향수업 확대 필요”

광주 일선 학교 ‘일방향’ 의존 높아…학부모·학생 볼멘소리
중·고교 전수조사, ‘쌍방향’ 80% 이상인 학교 절반도 안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광주 일선 학교에서 대면·비대면(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수업의 경우 쌍방향 수업이 정착되지 않아 학습효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높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등학교가 현재 도입하는 온라인수업 방식은 쌍방향 수업, 일방향 수업 크게 2가지다.

이중 쌍방향 수업은 줌과 구글미트, EBS 온라인 클래스 및 학습터 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가능한 수업 방식이다. 일방향 수업은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EBS 강의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다.

따라서 쌍방향 수업이 일방향 수업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학습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과 학생·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지난 2~5일 전체 중·고 159개교 중 온라인 수업을 하는 121개를 대상으로 쌍방향 수업 비율(시간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쌍방향 수업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는 53개교로 전체의 43.8%에 불과했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60~80%인 곳은 24개교(19.8%), 40~60%는 17개교(14.0%), 20~40%는 15개교(12.4%)였고, 20% 미만 학교도 12개(9.9%)나 됐다.

앞서 시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능력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학교 1학년생 학부모 김모씨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 슬로건이 ‘질문이 있는 학교’인데 ‘질문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모씨는 “성의 없는 온라인 교재를 만드는 선생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육당국자들에게 분노가 치민다”며 “교육 당국은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원격수업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교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학습권 보장

광주시의회, 시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외상과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김나윤 시의원(북구6 양산·건국·신용)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귀 때 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활동은 물론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활동 등의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김나윤 의원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이 광주 지역에만 87명이 있다. 외상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하면 120명이 넘는다”며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한의대 ‘정부 지원 기초연구사업’ 3개 과제 선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이 ‘2021년도 상반기 정부 지원 기초연구사업’에서 3개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

기초연구사업은 우수 연구자 양성과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다.

한의과대학 김재홍 교수가 중견연구 유형 1-2, 이승인 교수가 중견연구 유형 1-1, 양지혜 교수는 우수신진연구에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재홍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두침과 천왕보심단의 인지개선효능 탐색 및 치료메커니즘 규명’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승인 교수는 3년 간 2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식욕부진 동물 병태모델을 이용한 감초건강탕과 가감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3년 동안 3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양지혜 교수는 만성적인 알코올과 철분의 과잉섭취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간 손상을 제어하는 신규 약물 표적 분자를 연구하고, 만성 간질환으로의 이행을 억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 발굴을 위한 비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동신대 조명래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